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운동과 왕실(귀족) 여성:

- 마가레타 당굴렘(Marguerite d'Angoulême,
1492-1549)과 잔 달브레(Jeanne d'Albret,
1528-1572) 및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
1510-1575)를 중심으로

조용석(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교회사)

I. 글을 시작하며

본 논문은 16세기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지역에 위치했던 나바라(Navarra) 왕국의 왕비 마가레타 당굴렘(Marguerite d'Angoulême, 1492-1549) 및 당굴렘의 딸 잔 달브레(Jeanne d'Albret, 1528-1572),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위치했던 페라라(Ferrara) 왕국의 공작부인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 1510-1575)가 프랑스인 망명자 신분의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Johannes Calvin, 1509-1564)과 더불어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을 위하여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신학적 조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을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 혹은 이에 대한 구조적 파악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이 신성로마제

국의 종교개혁운동과 유사한 정치적 구조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신성로마제국의 프로테스탄트 제후와 같은 역할을 위에 언급한 세 명의 왕실(귀족)여성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들은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가톨릭 교회의 소장과 신학자 중심의 성서인문주의(Bibelhumanisme) 운동과 중세 신비주의 전통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당시 가톨릭 가문이 주도했던 왕실권력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암묵적으로 저항했다. 뿐만 아니라 칼빈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랑스 왕실 및 주류 가톨릭 가문의 종교개혁운동 탄압에 대항하여, 위그노교도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른 측면에서 이 사실을 고찰한다면, 본 연구가 소개하고자 하는 세 명의 왕실(귀족)여성의 삶의 공간은 16세기 프랑스 국내의 정치적 상황, 즉 가톨릭 기즈(Guise) 가문과 프로테스탄트 부르봉(Bourbon) 가문 사이의 권력투쟁과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이 프랑스 종교전쟁, 즉 위그노 전쟁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 가문과 기즈(Guise) 가문으로 대표되는 가톨릭 가문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내전상태에 돌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신성로마제국과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의 공통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에 의하여 정치적인 보호를 받았던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슈말칼덴 전쟁 및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협약을 통하여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종교개혁진영을 사수했던 것처럼, 프랑스 왕실(귀족)여성들의 정치적 후원을 받았던 칼빈의 종교개혁운동 또한 이후 위그노 전쟁(종교전쟁, guerres de religion) 및 낭트칙령(Édit de Nantes, 1598)을 통하여 프랑스 내에서의 개신교회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부 고위층 왕실(귀족)여성이 소속되었던 프로테스탄트 가문과 주로 중산층 시민계급으로 구성된 위그노 교도들이 프랑스 왕국의 중앙집권제에 균열을 야기시켰다.

이상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의 논리적 단계를 통하여 전개될 것이다: 1. 본 연구를 위한 역사적-신학적 전제(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의 전개과정) 2. 프랑스 왕실(귀족)여성들을 통한 종교개혁운동의 확산 3. 프랑스 왕실(귀족)여성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칼빈의 전략적 조치.

II. 본 연구를 위한 역사적, 신학적 전제: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의 전개과정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면죄(벌)부(indulgentia) 비판을 통하여 종교개혁운동이 발발한 이후, 1519년부터 그의 논쟁적인 저서들이 프랑스에 반입되면서, 에라스무스(Erasmus von Rotterdam, 1466-1536)의 성서 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 소장과 신학자 그룹을 통하여 라틴어로 출판된 루터의 저서와 프랑스어 번역판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종교개혁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성서인문주의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는 모(Meaux) 지역의 주교로서 활동했던 파버 스타프렌시스(Faber Stapulensis 혹은 Jacques Lefèvre d'Étaples, 1455-1536)와 기욤 브리소네(Guillaume Briçonnet, 1470-1534)였다. 파버 스타프렌시스의 경우, 루터와 별개로 에라스무스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성서원문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면서, 1512년에는 <바울서신주석>을 출판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프랑스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종교개혁운동의 움직임이 존재했다고 사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¹⁾

1) Eberhard Gresh, *Die Hugenotten: Geschichte, Theologie und Wirkung*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5). 26.

이 시기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고지대독일지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개혁자들은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을 배후에서 후원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자면, 스위스 취리히의 개혁자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는 1525년 라틴어로 서술된 〈주석〉(Commentarius)을 프랑스 왕 프랑소아 1세(François I, 1516-1562)에게 헌정했던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네바(Genève)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인 개혁자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의 〈요약〉(Sommaire, 1525) 또한 프랑스 가톨릭 소장과 인문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개혁자 볼프강 카피토(Wolfgang Capito, 1478-1541)는 호세아서 주석을 마가레타 당굴렘(Marguerite d'Angoulême, 1492-1549)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은 1533년-1534년에 발생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누이 마가레타 당굴렘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관용의 원칙을 최소한 견지했던 프랑수아 1세의 종교정책은 변화된다. 당시 프랑수아 1세는 성서 인문주의를 장려했으며, 종교적 관용의 원칙을 피력하면서, 성서 인문주의자 모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종교개혁운동을 차단하기로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통합의 중요한 정치적 토대로서 간주되었던 로마-가톨릭 교회의 봉건적 이념과 조직기반을 활용하고자 이와 같이 판단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부연하자면, 성서인문주의 운동이 지향하는 히브리어 및 헬라이어 성서독해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미사예식과 신학의 문헌적 근거가 되는 불가타(Vulgata) 성서본문을 비판적, 문헌학적으로 엄밀하게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한, 이는 왜곡된 성서번역에 근거하여 형성된 로마-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미사예식에 대한 잠재적인 비판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1. 니콜라스 콥(Nicolas Cop, 1501-1540)의 파리대학 학장 취임연설

1533년 11월 1일 만성절에 파리대학 예비과정 교수로서 재직했던 의학자 니콜라스 콥(Nicolas Cop, 1501-1540)이 학장 취임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시 루터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성서인문주의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했던 예수의 산상설교의 팔복선언에 관한 성서주석을 그의 취임연설로서 대치하면서, 일대 소란을 일으켰다. 대학예비과정과 의학부는 콥을 지지했지만, 법학, 신학부는 그의 학장 취임을 반대하면서, 콥을 지지했던 이들이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칼빈 또한 그의 취임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콥의 체포를 지시하고, 며칠 뒤에는 그의 추방을 결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콥과 칼빈은 파리로부터 도주하였다.

2. 벽보사건(l'Affaire des placards)

콥의 파리대학 학장 취임연설 이후 칼빈이 소속하여 활동했던 성서 인문주의자 그룹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반대하는 프랑스 정부의 최종적인 정치적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벽보사건'(l'Affaire des placards) 이후에 이는 결정되었다. 1534년 10월 17일과 18일 사이 한밤에 프랑수아 1세 침실입구에 다음과 같은 벽보가 부착되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프랑수아 1세의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다소 중립적이었던 정치적 입장은 변화된다.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인문주의자였던 기욤 부데(Guillaume Budé, 1468-1540)가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은 성서 인문주의자들을 본격적으로 비난하게 되면서,³⁾ 프랑수아 1세는 종교개혁운동을 금지하고,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이념 및 봉건적 교

2) Peter Opitz,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5.

3) Josef Bohatec, *Budé und Calvin* (Graz: Böhlau, 1950), 100f.

회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벽보사건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지지하던 일부 성서인문주의자들이 체포,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칼빈은 프랑스를 떠날 것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과 더불어 성서 인문주의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친구 두 틸레(Jean du Tillet, ?-1570)와 더불어 스트라스부르를 경유, 1535년 1월 바젤(Basel)에 도착했다. 스위스 의학자였던 콘라드 게스너(Conrad Gessner, 1516-1565)가 츠빙글리의 후계자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에게 알려준 당시 벽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주장했던) 테마는 왜곡된 로마-가톨릭 교회의 미사예식과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존을 주장하는 (화체설)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Thema erat contra missae abusum et praesentiae corporis in eucharistia negatio)⁴⁾

이와 같이 1534년 벽보사건(l’Affaire des placards)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하던 소장파 성서 인문주의자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운동은 더 이상 활로를 발견할 수 없게 되면서, 프랑스 국내의 종교개혁운동의 추진력이 상실된 이후, 망명자 파렐과 칼빈이 주도했던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운동이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의 결집과 저항을 위한 중요한 국제정치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⁵⁾

이후 1562년 발발한 위그노 전쟁(종교전쟁, guerres de religion)을 시작으로 1598년 낭트칙령(Édit de Nantes)이 반포될 때까지 프랑스의 가톨릭 왕

실과 위그노 시민계급 사이의 내전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위그노 교도들은 종교적 관용의 원칙을 표방했던 일부 왕실(귀족)여성들의 정치적 후원을 받으며, 프랑스의 저항세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종교개혁적인 입장을 전적으로 지향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종교적 관용의 원칙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봉건왕조체제의 이념적 토대를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며, 프랑스 왕실권력을 장악하고자 시도했던 가톨릭 가문과 대립했다고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프랑스 왕실(귀족)여성들이 칼빈과 연대하며, 위그노 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던 것은 당시 프랑스 왕실권력 장악과 관련된 개신교 가문과 가톨릭 가문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 종교전쟁(위그노 전쟁) 또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프랑스 개신교회의 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된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서, 프랑스 왕실권력 장악과 관련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가문 사이의 갈등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와 같은 당시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의 폭력적 저항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주장했던 ‘양심과 신앙의 내면적 저항’과 이에 근거하여 폭군의 임의적인 권력행사를 제어하기 위한 관료들의 저항권 이론은 종교개혁운동을 탄압하는 프랑스 왕실의 독재정치(Tyrannie)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칼빈이 올바른 정치권력 수립에 대한 정당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서, 앙트완 드 부르봉(Antoine de Bourbon, 1518-1572)과 그의 형제인 루이스 드 콩데-부르봉(Louis de Condé-Bourbon, 1530-1569)을 비롯한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개신교 신앙을 사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전술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⁶⁾ 이와 관련된 칼빈의 신학적 진술(기독교 강요 최종판, 1559)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4) CO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10/2, Gesnerus Bullingeri (1534년 12월 27일 편지), 43.

5) 이와 관련하여 칼빈의 모든 신학적 작업, 예를 들자면 〈기독교 강요〉 저술작업이 제네바 및 프랑스의 상황을 염두하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그는 1559년 5월 파리 개신교회 회의에서 가결된 갈리아 신앙고백(Confessio Gallicana)를 기획, 수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네바 교회규정을 모방한 프랑스 개신교회의 교회규정(Discipline ecclésiastique)이 작성되었다.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프랑스 개혁교회를 제네바 개혁교회규정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했던 신학적 시도였다. -눈자 주-

“양심이 필수적으로 강요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⁷⁾

“만일 지금 왕들의 욕망을 제어할 목적으로 임명된 백성의 관리들이 있다면 …… 그들이 왕들의 횡포에 대하여 자신의 직책에 부합하게 항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폭군들의 통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나는 그들의 위선을 매우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백성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로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⁸⁾

지금까지 소개했던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의 종교개혁운동을 단순히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적 모토였던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 관습의 타파’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이념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었던 중세 봉건제도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성로마제국의 경우, 황제와 제후 사이의 정치적 긴장 관계 속에서 촉발된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황제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제후들의 정치적 후원을 받아 진행된 것처럼, 프랑스의 경우 또한 중앙집권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테스탄트 가문 왕실(귀족)여성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상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그들을 통하여 정치적 탄압의 대상

6) Peter Opitz,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133.

7) “conscientiae non quasi Legis necessitate coactae, Legi obsequantur: sed Legis ipsius iugo liberae, voluntati Dei ultro obediunt.” OS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IV,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283

8) “Nam siqui nunc sint populares magistratus ad moderandum Regum libidinem constituti …… adeo illos ferocenti Regum licentiae pro officio intercedere non veto, ut si Regibus impotenter grassantibus et humili plebeculae insultantibus conniveant, eorum dissimulationem nefaria perfidia non carere affirmem: quia populi libertatem, cuius se Dei ordinatione tutores positos norunt, fraudulenter produunt.” OS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V,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501.

이었던 프랑스의 개신교인, 즉 위그노 교도들은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위그노 교도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III. 프랑스 왕실(귀족)여성들을 통한 종교개혁운동의 확산

칼빈이 1536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로서 활동하면서, 마가레타 당굴렘(Marguerite d'Angoulême, 1492-1549)과 그의 외동딸 잔 달브레(Jeanne d'Albret, 1528-1572) 및 이탈리아 페라라 왕국의 공작부인이었던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 1510-1575)에게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갔다. 이 세 명의 왕실(귀족) 여성은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을 위한 그들의 신학적-정치적 공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마가레타 당굴렘(Marguerite d'Angoulême, 1492-1549)

프랑스어 1세의 누이이며, 나바라 왕국의 왕비였던 종교적 관용의 원칙을 표방했던 마가레타 당굴렘은 남동생 프랑수아 1세의 신임을 얻어, 파리궁전에서 기거하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을 때, 보수적인 소르본느(Sorbonne) 대학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의 종교적 성향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우회적으로 그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1531년 성서 인문주의자 그룹의 수장으로서 활동했던 주교 파버 스타프렌

시스의 제자인 제라르 루셀(Gérard Roussel, 1500-1550)이 나바라 왕국의 왕비 마가레타 당굴렘을 위한 사순절 궁전설교자로 임명되면서, 양 진영의 격렬한 논쟁이 접화되었다.

2. 1533년 마가레타 당굴렘이 중세 신비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죄악으로 물든 영혼의 거울”(Le miroir de l'âme pécheresse)⁹⁾라는 저서를 출판했을 때, 소르본느 대학 신학부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이 저서를 금서로 지정했다.

이상 소개된 두 가지 사건은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던 프랑스 가톨릭 성서 인문주의자 그룹이 마가레타 당굴렘의 정치적 후원에 힘입어 소르본느(Sorbonne) 대학 신학부 교수들과 대립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왕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립했던 양진영의 분쟁은 이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기문의 권력투쟁으로 전환, 확대된다.

1527년 나바라 왕국의 왕 앙리 달브레(Henri d'Albret, 1503-1555)와 결혼하면서, 외동딸 잔 달브레를 출산했던 그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서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차원에서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자면, 그는 1521년 루터의 저작들이 프랑스 국내에 대중적으로 유포될 수 있도록, 루터 저작의 프랑스어 번역작업을 측면에서 후원하였으며, 모(Meaux) 지역에서 활동했던 성서 인문주의자들과 서신교환을 통하여 상호간 신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해

9) Marguerite de Navarre, *Le miroir de l'ame pecheresse. Edition critique et commentaire suivis de la traduction faite par la princesse Elisabeth, future reine d'Angleterre: The Glasse of the Synnefull Soule*. Annales Academiae Scientiarum Fennicae. Par Renja Salminen (Helsinki: suomalaninen Tiedeakatermia, 1979); 이외에 마가레타 당굴렘의 유명한 저서로서 “Heptameron”(헵타메론, 7일 동안 일어난 72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당굴렘의 사후 1558년에 출판된 이 저서에는 평신도 여성과 교회개혁에 대한 그의 다소 진보적인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Margarete von Navarra, *Das Heptameron*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99).

주었다.¹⁰⁾ 뿐만 아니라 칼빈이 니콜라스 콕의 파리대학 학장 취임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혐의가 포착된 이후, 본격적인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법정소송이 취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1534년 10월 17일-18일 사이에 발생했던 소위 ‘벽보사건’(l’Affaire des placards)으로 인하여 프랑스 왕실이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탄압방향을 확고하게 결정했을 때, 그는 이전처럼 종교개혁세력을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면서, 나바라 왕국으로 귀환하여, 자신이 종교적 신념, 즉 종교적 관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운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였다.

2. 잔 달브레(Jeanne d'Albret, 1528-1572)

마가레타 당굴렘의 외동딸 잔 달브레는 그의 어머니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천명했다. 그녀가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의 최고지도자로서 등극했을 때, 1562년 3월 바시(Vassy)에서 예배드리던 위그노 교도들이 유력 가톨릭 기즈 가문에 의하여 집단적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위그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때 그는 어머니 마가레타 당굴렘의 종교개혁적 활동을 계승하여, 나바라 왕국 안에서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 프로그램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위그노 교도들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위그노 전쟁 중에 그의 남편이며 나바라 왕국으

10) 특히 신앙성서 회람어 원문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던 파버 스타프렌시스가 소르본느 대학 신학부 교수들의 정죄를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1534년 이후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시행되었을 때, 위기를 직감했던 그는 북부 이탈리아 지역 페라라(Ferrara) 왕국의 공작부인 르네 드 프랑스가 박해받은 프랑스 성서인문주의자들을 위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는 자 주-

11) Pierre Jourda, *Marguerite d'Angoulême, duchesse d'Alençon, reine de Navarre (1492-1549). Etude biographique et littéraire* (Paris: Librairie ancienne Honoré Champion, 1930), 186

로 왕으로서 재위했던 앙트완(Antoine de Bourbon, duc de Vendôme, 1518-1562)이 가톨릭 기증 가문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면서, 그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지만, 1562년 위그노 전쟁에서 남편이 전사한 이후, 나바라 왕국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종교개혁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563년 당시 교황 피우스 4세(Pius IV)는 1563년 이와 같이 확고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고수했던 그를 이단이라고 규정, 파문시키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경고장을 보냈을 때, 그는 교황의 특사였던 다르마냐(d'Armagna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포(Pau)에서, 그리고 레스카(Reska)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지금 제가 관할하고 있는 이 베아른(Béarn) 지역 전체에 계속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당신이 주장하듯이 제가 새로운 종교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몰락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려 한 것이며, 그 계획 가운데 저는 행복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어떤 것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사형시키거나 투옥하지 않습니다.”¹²⁾

위그노 교도의 여성지도자로서 활동했던 나바라 왕국의 왕비 잔 달브레의 정치적 후원 아래 성장했던 위그노 교도의 정치적 영향력은 프랑스 내에서 프로테스탄트 세력과 가톨릭 세력이 상호간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의 아들 앙리 4세(Henri IV, 1553-1610)와 앙리 2세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édicis, 1519-1589)의 딸 마가레타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 1553-1615)의 결혼은 프로테스탄트 가문이 매우 위협적인 정치세력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¹³⁾ 왜냐하면 이는 프로테스탄트 부르봉(Bourbon) 가문의 왕실권력 장

12) Nancy Lyman Roelker, *Queen of Navarre: Jeanne d'Albret, 1528-157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68), 219.

악의 실현 가능성을 내포했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가톨릭 세력이 앙리4세와 마가레타 드 발루아의 결혼식 직후 8월 24일 성 바르톨로뮤 축일에 파리에서 수천명의 위그노 교도들을 학살(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운동은 내전상황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앙리 4세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서 위그노 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공포되었던 낭트칙령(Édit de Nantes, 1598)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가문의 세력균형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왕실권력체제가 확립되었다.

3.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 1510-1575)

1510년 루이 12세와 브르타뉴의 안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던 르네 드 프랑스는 프랑스 왕실의 계획 아래 북부 이탈리아 지역 페라라 공국의 공작 에콜 에스테(Ercole d'Este, 1508-59)와 1528년 정략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바라 왕국의 왕비 마가레타 당굴렘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던 르네가 페라라 왕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칼빈과 예수회 창시자 로올라(Ignacio de Loyola, 1491-1556)의 압력을 동시에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표명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위그노 교도들을 보호하면서, 칼빈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다.

1559년 르네의 남편 에콜이 생을 마감하고, 아들 알폰소 2세(Alphonse II d'Este, 1533-1597)이 페라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는 어머니 르네에

13) 부연하자면,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9세(Charles IX, 1550-1572)는 프랑스의 국론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페인과의 전쟁을 모색하는 동안, 동시에 그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는 위그노 전쟁으로 인하여 수세에 처한 가톨릭 가문의 국면전환을 위하여 잔 달브레의 아들 나바라 왕국의 왕 앙리 IV세와 자신의 딸 마가레타 드 발루아의 결혼을 성사시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잠정적으로 지연시켰다. 논자 주

게 칼빈주의의 신학적 이념을 포기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페라라 왕국을 떠나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하여 1560년 9월에 페라라 왕국을 떠나 몽타르지(Montargis)에 가서 그 곳에서 “몽타르지의 귀부인”(la Dame de Montargis)라고 불리면서 통치했다. 르네는 그 곳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종교적 관용의 원칙에 따라 위그노 교도와 가톨릭 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 르네의 딸 안나(Anna d'Este, 1531-1607)가 가톨릭 기즈(Guise) 가문의 프랑소아 드 로렌(François de Lorraine, duc de Guise, 1519-1563) 공작과 결혼하면서, 르네는 양측의 지지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르네의 사위였던 프랑소아 드 로렌은 당시 가톨릭 세력의 지도자로서, 1562년 바시(Vassy)에서 위그노 교도들의 대량학살을 진두지휘하면서, 위그노 전쟁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급기야 그녀가 사위가 위그노 교도들에 의하여 암살당하게 된 후, 자신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잔 달브레와 달리 르네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진영 사이에서 복잡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즉 내적으로는 분명하게 종교개혁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톨릭 기즈 가문과 프로테스탄트 부르봉 가문 사이에서 항상 신중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IV. 프랑스 왕실(귀족)여성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칼빈의 전략적 조치

칼빈은 1533년 니콜라스 콕의 파리대학 확장취임연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나바라 왕국의 왕비 마가레타 당굴렘의 도움을 받아, 검거되지 않고 피신할 수 있게 된 이후, 그가 종교개혁자로서의 활동을 마감할 때까지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을 위하여 고위직 왕실(귀족)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

실을 확신하고,¹⁴⁾ 그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서신교환 및 목회자 파송을 통한 관계지속.

칼빈이 중점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세 명의 왕실(귀족)여성, 마가레타 당굴렘, 잔 달브레, 르네 드 프랑스 중에서 잔 달브레를 제외한 두 명은 공개적으로 종교개혁진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부연하자면, 중세 여성 신비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던 마가레타 당굴렘은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 내에서 종교적 관용의 원칙의 강조하면서도,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에 공감했던 인문주의자로서, 칼빈이 주도했던 종교개혁운동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역사학자 레오나르(Émile G. Léonard, 1891-1961)는 마가레타 당굴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마가레타 당굴렘은 루터적인 영혼을 지니고 있고(루터의 종교개혁사상에 공감하고), 인문주의자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톨릭적인(신앙적) 감수성을 지닌 여인이다.”¹⁵⁾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페라라 왕국의 공작부인 르네 또한 당굴렘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에 마가레타 당굴렘의 외동딸 잔 달브레는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운동을 지지하면서, 나바라 왕국 안에서 칼빈의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관철시켰다. 잔 달브레는 자신에게 종교개혁운동을 추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14) Jules Bonnet (Hg.), *Lettres de Jean Calvin recueillies pour la première fois et publiées d'après les manuscrits originaux. Lettres françaises*, Bd. 2, 1854, CALVIN A LA DUCHESSE DE FERRARE (1561년 1월 16일 편지), 370.

15) Émile G. Léonard, *Le Protestant français*, 2. Aufl. (Paris: Editions P.U.F. 1955), 202.

“생존하는 군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은 군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것 위에 그분을 따라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백성들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 통치자들의 일치와 공공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한 군주와 왕들의 모범을 따라가기 위하여 …… 앞에서 말한 나라의 모든 백성이 신분, 상황, 성별, 계급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 교리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저작에 확실하게 기초를 두고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공포하는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¹⁶⁾

정리하자면, 당굴렘과 르네는 종교적 관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내적으로는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했다. 예를 들자면, 당굴렘은 신비주의자 및 자유주의자들(Libertins)을 초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공개적인 토론도 개최하기까지 했으며,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의 미사예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칼빈은 당굴렘이 초대했던 신비주의자들이 위험한 분파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굴렘과 칼빈의 관계는 일종의 전략적인 정치적 동맹의 관계를 유지했다: 당굴렘의 입장에서는 칼빈 및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지지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가톨릭 세력의 왕실권력을 장악을 견제해야만 했던 입장에 있었으며, 반면에 칼빈은 그녀의 정치적 후원을 통하여 박해받는 개신교인들을 보호하면서, 이후 종교개혁운동의 동력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르네의 우유부단한 태도 또한 극복되어야만 했던 핵심적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르네는 칼빈의 신학적 입장

을 지지하면서도, 가톨릭 교회와의 정치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르네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에서의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목회사역을 마치고 1541년 제네바로 복귀하면서 르네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르네는 칼빈에 있어서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한 여성지도자로서 간주되었다. 이 편지 중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위와 탁월함을 생각해 볼 때, 선하신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당신과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¹⁷⁾

1562년 제1차 위그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칼빈은 르네가 자신이 통치하던 몽타르지 지역에 가톨릭 기즈 가문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했던 것에 대하여 극구 칭찬했다.¹⁸⁾ 그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르네 드 프랑스가 통치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언급했다.¹⁹⁾ 이와 같이 칼빈은 르네와 같은 왕실(귀

17) CO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11, *CALVIN A LA DUCHESSE DE FERRARE*, 325-326.

18) Jules Bonnet (Hg.), *Lettres de Jean Calvin recueillies pour la première fois et publiées d'après les manuscrits originaux. Lettres françaises*, Bd. 2, 1854, *CALVIN A LA DUCHESSE DE FERRARE* (1563년 5월 10일 편지), 513-517.

19) 앞의 책, *CALVIN A LA REINE DE NAVARRE* (1561년 12월 24일 편지), 439: 이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견해가 드러난 서신의 일부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1557년 9월 4일 파리에서 예배드리던 개신교인들이 체포, 구금된 후,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했다. “하나님께서 남성처럼, 여성인 당신 또한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또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본분을 다하여 위대한 영웅들처럼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은

16) Nancy Lyman Roelker, *Queen of Navarre: Jeanne d'Albret, 1528-157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68), 430-431.

죽)여성에게 비교적 온건하게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평범한 프랑스인 개신교인들에게는 비타협적인 자세로 종교개혁신앙을 사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예를 들자면, 1563년 7월 31일 앙리 2세의 왕비였던 가톨릭 교도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그의 아들 샤를 9세(Charles IX de France, 1550-1574)가 랑그독(Languedoc) 지역을 방문했을 때, 칼빈은 그 지역 행정관이었던 앙트완 드 크루솔(Antoine de Crussol, 1528-1573)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록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생명의 위협이 감지된다고 하더라도,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압박으로 인하여 로마-가톨릭 교회의 미사에 결코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²⁰⁾

또한 칼빈은 1561년 르네가 통치하던 몽타르지 지역으로 목회자 프랑소아 드 모렐(François de Morel)을 파송하여, 르네가 추진했던 종교개혁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시도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칼빈의 시도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1541년 르네가 가톨릭 교회 주교를 역임했던 프랑수아 리카르도(François Richardot, 1507-1574)를 궁전설교자로서 임명하게 된 후, 칼빈은 프랑소와 드 모렐을 통하여 몽타르지 지역의 종교개혁운동이 좌초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그 보고에 의하면, 르네 드 프랑스가 임명했던 궁전 설교자 프랑수아 리카르도는 페레라 왕국의 시민들이 비록 개신교회로 전향했다고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고해성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르네를 설득했다.²¹⁾ 이 때 칼빈은 르네에게 편지를 보내어, 더 이상 페레라 왕국 궁전 안에서 불경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자신의 조언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²²⁾ 이 편지를 읽은 후, 르네는 가톨릭 미사

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설교자 프랑수아 리카르도를 해임하지는 않았다.

V. 글을 정리하며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교적 관용을 표방했던 프랑스 왕실의 귀족여성들과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자신의 조국 프랑스 국내의 종교개혁운동을 후원했다. 아울러 당시 일부 왕실(귀족)여성들은 칼빈의 도움을 받으며, 가톨릭 가문이 장악했던 왕실권력 내부에서 종교개혁운동의 근거지를 제공하면서, 이후 위그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도록 시대적 여건을 조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왕실(귀족)여성들만이 당시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을 위하여 기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자면, 1557년 9월 4일 포브르-생-자크(Faubourg-Saint-Jacques) 거리에서 체포되어 사형당했던 상당수의 개신교인들 중에서 21명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종교개혁운동을 위하여 헌신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²³⁾

좀 더 심층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당시 프랑스 왕실은 이와 같이 정치적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조직을 통한 통일적 통치전략을 구사했을 뿐, 왕실기문 구성원, 특히 왕실(귀족)여성들에 대한 획일적인 이념적 통제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들은 칼빈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완전한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추측하건대, 프랑스 왕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이념에 대한 찬반여부보다 오히려 효율적 통치수단으로서 적합한 종교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정치

총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CO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16, *CALVIN AUX PRISONNIÈRE DE PARIS*, 632-634.

20) CO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20, *CALVIN A CRUSSOL*, 111-113

21) É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Bd. 2 (Lausanne: G. Bridel & cie, 1899), 78.

22) CO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11, *CALVIN A LA DUCHESSE DE FERRARE*, 323

23) Émile G. Léonard, *Le Protestant français*, 2. Aufl. (Paris: Editions P.U.F. 1955), 48.

적 사안으로서 등장했을 것이다.

논자는 신성로마제국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정치적 지지에 근거하여 관찰된 종교개혁운동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왕국의 중앙집권체제의 붕괴를 우려했던 프랑스 왕실은 이와 같은 종교개혁운동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감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부연하자면, 교황을 정점으로 고안된 가톨릭 교회의 위계질서는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할 위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구비했던 통일적인 사회조직을 국정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다소 분권화된 정치체제를 지향했던 종교개혁운동을 탄압했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톨릭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던 황제와 프로테스탄트 제후 사이의 절묘한 정치적 세력균형을 형성시켜며, 황제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던 신성로마제국 루터의 종교개혁운동과 유사하게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성로마제국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정치적 후원을 받았던 1세대 종교개혁자 루터 및 스위스 연방 프로테스탄트 칸톤(Kanton) 시민의회의 지지를 받았던 츠빙글리처럼, 2세대 주류 종교개혁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 시민의회와 프랑스 국내 일부 고위층 왕실(귀족)여성들과의 전략적 차원의 협력적 관계유지를 통하여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주요 특징이었던 소위 관료적 종교개혁운동(Réforme magistrale)을 전개했다.

이후 위그노 교도가 프랑스의 중요한 정치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왕실권력 장악을 위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가문 사이의 갈등은 위그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앙리 4세와 마가레타 드 발루아의 결혼 이후, 1598년 4월 15일 반포된 낭트칙령을 통하여 위그노 교도들은 합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685년 루이 14세가 폰텐블루칙령(Édit de Fontainebleau)을 반포하면서, 위그노 교도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이로 인하여 상공업에 종사했던 대다수 위그노 교도들이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내에서는 종교개혁운동을 통한 체제저항운동은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16세기 프랑스 왕실권력을 장악했던 봉건적인 가톨릭 세력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저항이 이후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계승되었다는 평가를 과감하게 시도해 본다면, 이는 매우 개연성이 높은 역사적 가설일 수 있다.²⁴⁾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1789년 발발했던 프랑스 시민혁명은 16세기 위그노 전쟁이 추구했지만, 완전히 실현할 수 없었던 '가톨릭 이념으로 무장된 봉건귀족층의 와해' 및 '프랑스의 가톨릭 절대왕정 체제의 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일반 시민들의 봉기를 통하여 시도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운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통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24) 바르톨로메 대학살(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1572.8.24) 이후, 칼빈주의자로서 분류되는 알트지우스(Johannes Althusius, 1563-1638), 호트만(Francois Hotman, 1524-1590), 베자(Theodore Beza, 1519-1605), 모네이(Phipippe Duplessis-Mornay, 1549-1623)는 군주제와의 투쟁을 통하여 칼빈의 저항권 이론을 민주주의적으로 구체화시켰으며, 그들의 이론은 통치자의 무제한적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서구사회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중요한 공헌을 했다. -논자 주: 일반의지의 시행을 통한 국민 주권의 확립이라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했던 루소(Jean-Jacqué Rousseau, 1712-1778)의 경우, 그가 제네바 출신 위그노 교도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프랑스 시민혁명에 미친 칼빈주의의 영향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Hans Scholl, *Verantwortlich und frei. Studien zu Zwingli und Calvin, zum Pfarrerbild und zur Israeltheologie der Reformation*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6), 135-158: 독일 개혁신학자이며 역사신학자인 훈더스하겐(Karl Bernhard Hundeshagen, 1810-1872)는 칼빈주의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공화국 이념이 근대 프랑스 국가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Karl Bernhard Hundeshagen, *Calvinismus und staatsbürgerliche Freiheit. Hubert Languet: Wider die Tyrannen*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AG, Zollikon, 1946), 25-26,

참고문헌

1. 1차 문헌
- 칼빈전집
-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hg. von G. Baum; E. Cunitz; E. Reuss, 59 Bde., Nachdr. der Ausgabe Braunschweig 1863-1900, New York, 1964. (약어: CO)
- 칼빈선집
- Ioannis Calvinii Opera Selecta*. 5 Bde. Hg. v. P. Barth, W. Niesel [und D. Scheuner]. München 1926-52. (약어: OS)
-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OS 3,4,5.
2. 2차 문헌
- Barton, F. Whitfield. *Calvin and the Duches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Bohatec, Josef. *Budé und Calvin*. Graz: Böhlau, 1950.
- Bonnet, Jules(Hg.). *Lettres de Jean Calvin recueillies pour la première fois et publiées d'après les manuscrits originaux*. Lettres françaises. Bd. 2, 1854
- Cottret, Bernard, *Calvin. Eine Biographie*. Stuttgart: Quell-Verlag, 1998.
- Domrose, Sonja. *Frauen der Reformationsz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Doumergue, Émil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Bd. 2, Lausanne: G. Bridel & cie, 1899.
- Gresh, Eberhard. *Die Hugenotten: Geschichte, Theologie und Wirkung*.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5.
- Jourda, Pierre. *Marguerite d'Angoulême, duchesse d'Alençon, reine de Navarre (1492-1549). Etude biographique et littéraire*. Paris: Librairie ancienne Honoré Champion, 1930.
- Hundeshagen, Karl Bernhard. *Calvinismus und staatsbürgerliche Freiheit. Hubert Languet: Wider die Tyrannen*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AG, Zollikon, 1946.
- Marguerite de Navarre. *Le miroir de l'ame pecheresse. Edition critique et commentaire suivis de la traduction faite par la princesse Elisabeth, future reine d'Angleterre: The Glasse of the Synnefull Soule*. Annales Academiae Scientiarum Fennicae. Par Renja Salminen, Helsinki: suomalaninen Tiedeakatermia, 1979.
- _____. *Das Heptameron*,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99.
- Léonard, Émile G. *Le Protestant français*, 2. Aufl. Paris: Editions P.U.F., 1955.
- Oberman, Heiko Augustinus, *Die Reformation. Von Wittenberg nach Genf*.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 _____. *Subita Conversio. The Conversion of John Calvin*. In: Das reformierte Erbe. Festschrift für Gottfried W. Locher, hg. von H. A. Obermann; E. Saxer, A. Schindler; H. Stucki, Teil 2, Zürich 1993, 279-295.
- Opitz, Peter.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 Plasger, Georg. *Johannes Calvins Theologie – Eine Einführ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 Roelker, Nancy Lyman. *Queen of Navarre: Jeanne d'Albret, 1528-157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68.
- Selderhuis, Herman J. Hrsg. *Calvin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Scholl, Hans. *Verantwortlich und frei. Studien zu Zwingli und Calvin, zum Pfarrerbild und zur Israeltheologie der Reformation*.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6.
- Wendel, François. *Calvin, Ursprung und Entwicklung seiner Theologi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8.